



2021.02.30.

국회사무처 | Manual Guide Book | 1호

국회 간행물 표준 디자인 가이드

Publication Identity Guide of the National Assembly

국회 간행물 표준 디자인 가이드

Publication Identity Guide of the National Assembly

I. Basic Design

1. 로고 디자인 Logo Design
2. 색상 체계 Color System
3. 타이포그래피 체계 Typography System

II. Application Design

1. 표지 디자인 Cover Design
2. 디자인 활용 Variation

I. Basic Design

1. 시그니처 체계 Signature System
2. 색상 체계 Color System
3. 타이포그래피 체계 Typography System

1. 시그니처 체계 Signatur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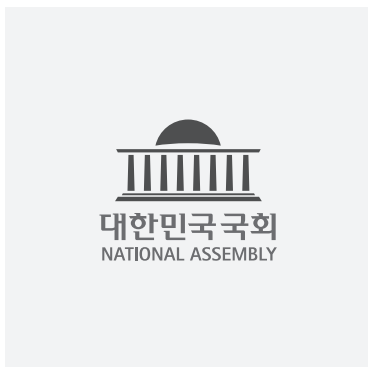
가. 대한민국 국회 P.I. 시그니처

기존 대한민국 국회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인쇄 매체 적용에 용이하도록 수정 및 보완한다.

* 작은 크기 사용 시 시인성 확보 | 1도 인쇄 로고 색상 규정(색상 균일화)

① 국회 시그니처

기존 국회 심볼의 시각적 인상을 유지하며 인쇄 매체 환경(로고를 작게 사용하거나 1도 인쇄하는 경우)에 적합하도록 면적 단위의 돔 형태를 활용한다.



나. 기관별 P.I. 시그니처

기존 기관별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인쇄 매체 적용에 용이하도록 수정 및 보완한다.

* 작은 크기 사용 시 시인성 확보 | 1도 인쇄 시그니처 색상 규정(색상 균일화) | 로고타입 서체 통일

① 기관별 시그니처

기존 시그니처는 형태가 복잡하고 그라디언트 체계를 사용한다. 인쇄 매체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나치게 작은 요소가 생기거나 그라디언트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② 기관별 P.I. 시그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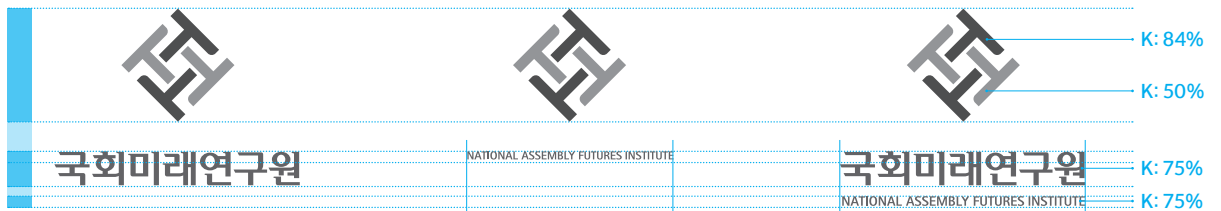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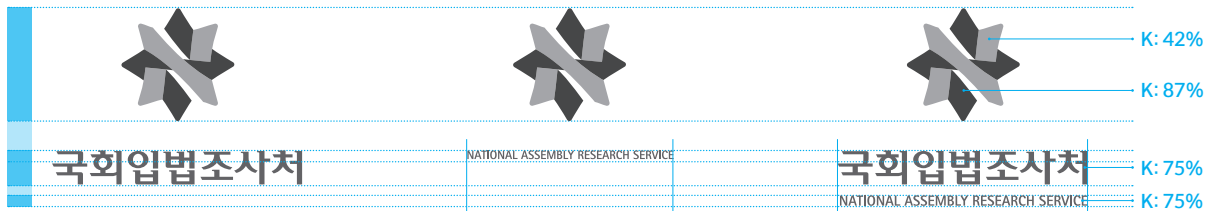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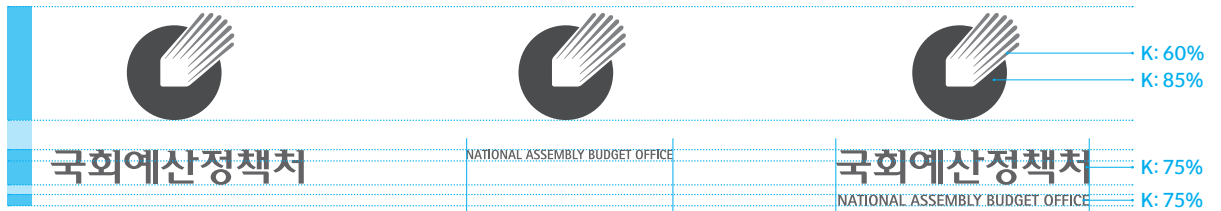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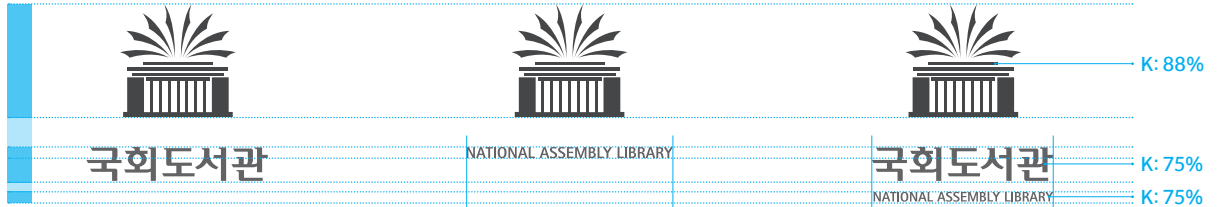
심볼 공간을 규정하는 프레임을 제거하고 기관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형태를 정리한다.
 동일한 로고타입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내부 기관임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② 기관별 P.I. 시그니처

각 기관별 시그니처는 통일된 그리드 시스템에 맞추어 사용한다.

심볼과 로고타입의 간격 및 크기는 반드시 비례에 맞추어 사용한다.



② 기관별 P.I. 시그니처

국·영문 시그니처를 표준형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국문형과 영문형 시그니처를 사용할 수 있다.
규정한 심볼과 로고타입의 간격 및 크기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문 시그니처

영문 시그니처

국·영문 시그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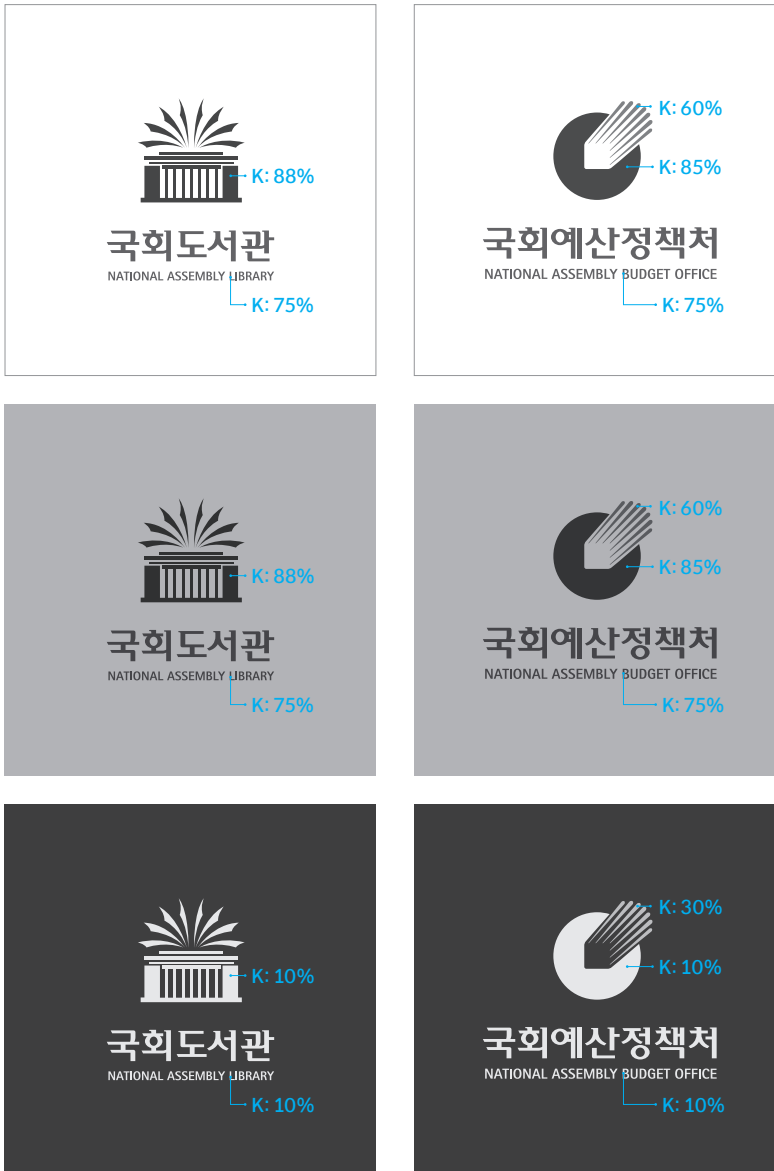
③ P.I. 시그니처의 회색조 배경 활용

회색조 배경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 농도에 따라 시그니처의 1도 색상을 규정하여 사용한다.

규정한 심볼과 로고타입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밝은 배경 색상의 경우(K: 70 미만) 흑색 1도를 Multiply Effect로 배경색과 혼합,

어두운 배경 색상의 경우(K: 70 이상) 시그니처의 백색 사용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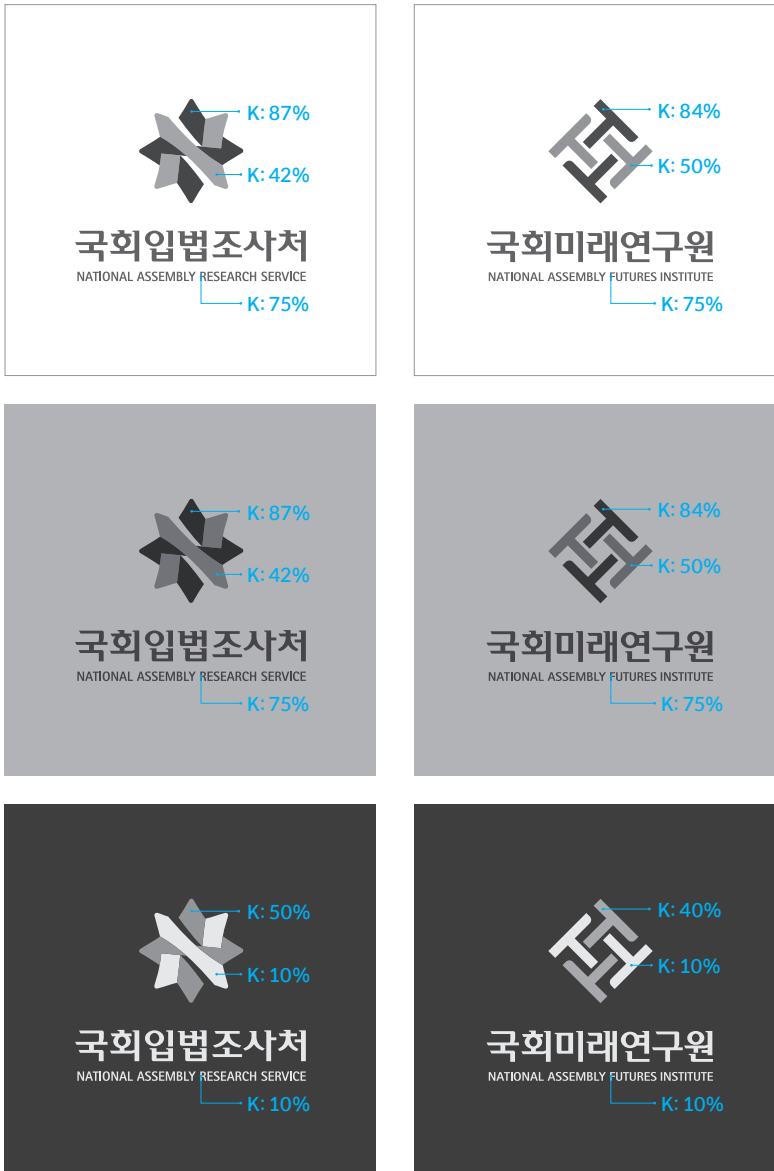
③ P.I. 시그니처의 회색조 배경 활용

회색조 배경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 농도에 따라 시그니처의 1도 색상을 규정하여 사용한다.

규정한 심볼과 로고타입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밝은 배경 색상의 경우(K: 70 미만) 흑색 1도를 Multiply Effect로 배경색과 혼합,

어두운 배경 색상의 경우(K: 70 이상) 시그니처의 백색 사용을 규정



다. 시그니처 병기 사용 시스템

인쇄 매체의 환경에 따라 기관별 시그니처와 대한민국 국회 심볼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각 시그니처와 심볼의 간격 및 크기를 규정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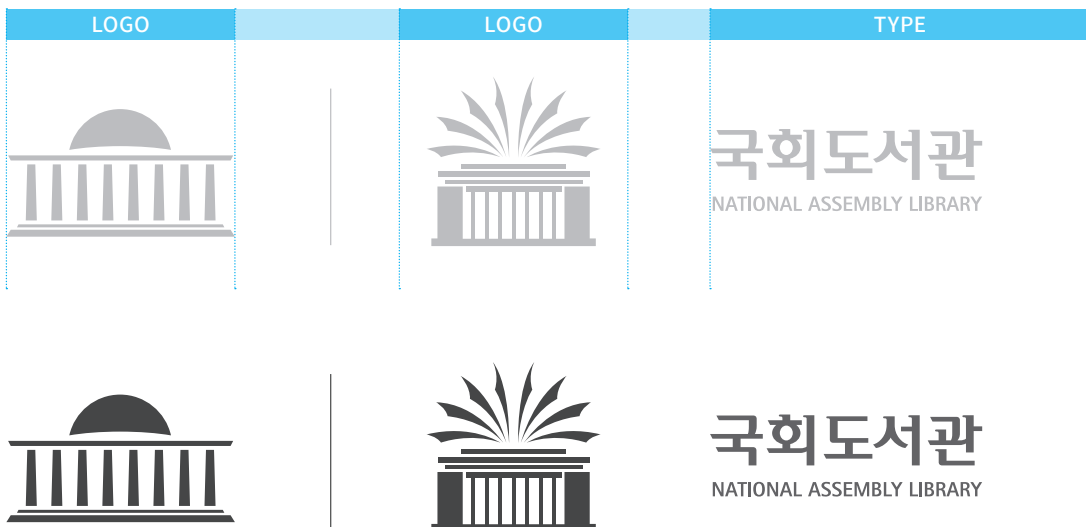
* 기관별 시그니처와 대한민국 국회 심볼을 분리하는 경우 각 개체의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

* 병기 사용 매뉴얼의 위치나 크기 비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① 상·하 조합



② 좌·우 조합



① 상·하 조합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문·영문 조합형(기본형)

① 상·하 조합



국
회
도
서
관



국
회
예
산
정
책
처



국
회
입
법
조
사
처



국
회
미
래
연
구
원

국문 세로쓰기형

② 좌·우 조합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문·영문 조합형(기본형)

2. 색상 체계 Color System

가. 대한민국 국회 통합 색상 체계

국회 통합 색상 체계는 기관별 색상과 함께 사용 가능한 그레이 스케일 테마를 활용한다.

* 사무처(법제실)는 특정한 경우 지정된 색상 체계를 사용 할 수 있음

① Black & White

Grayscale Color System



② 국회사무처(법제실)

Main Color

Additional Color



나. 기관별 색상 체계

기관별 명확한 아이덴티티 구분을 위해 시인성이 강한 색상 체계를 규정한다.

원색을 피하고 눈에 피로도가 낮은 Main Color와 추가 색상을 제안하며 격조 높은 인상을 준다.

* 각 기관별 2가지 색상을 선정하고 1년 단위로 메인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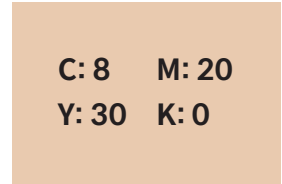
① 국회도서관



Main Color



Additional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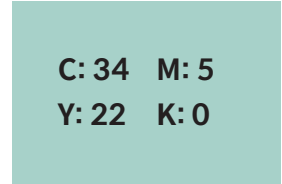
② 국회예산정책처



Main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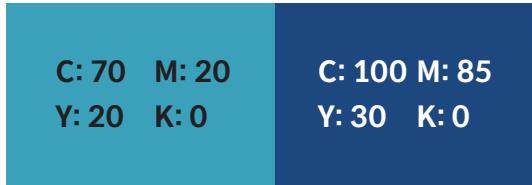
Additional Color



③ 국회입법조사처



Main Color



Additional Color



④ 국회미래연구원



Main Color



Additional Color



다. 시그니처 배경 색상 활용

인쇄 매체 적용 시 시그니처와 함께 배경 색상을 활용하는 경우 배경 색상에 따라 시그니처의 색상을 규정하여 사용한다.

① 국회 심볼의 규정 공간 활용

대한민국 국회 심볼을 일정 공간에 사용하는 경우, 다른 배경 색상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한다.

* 국회 로고 공간은 K: 70 이상의 색상 농도 이상으로 규정하며 국회 심볼은 백색 규정으로 사용



모노톤 칼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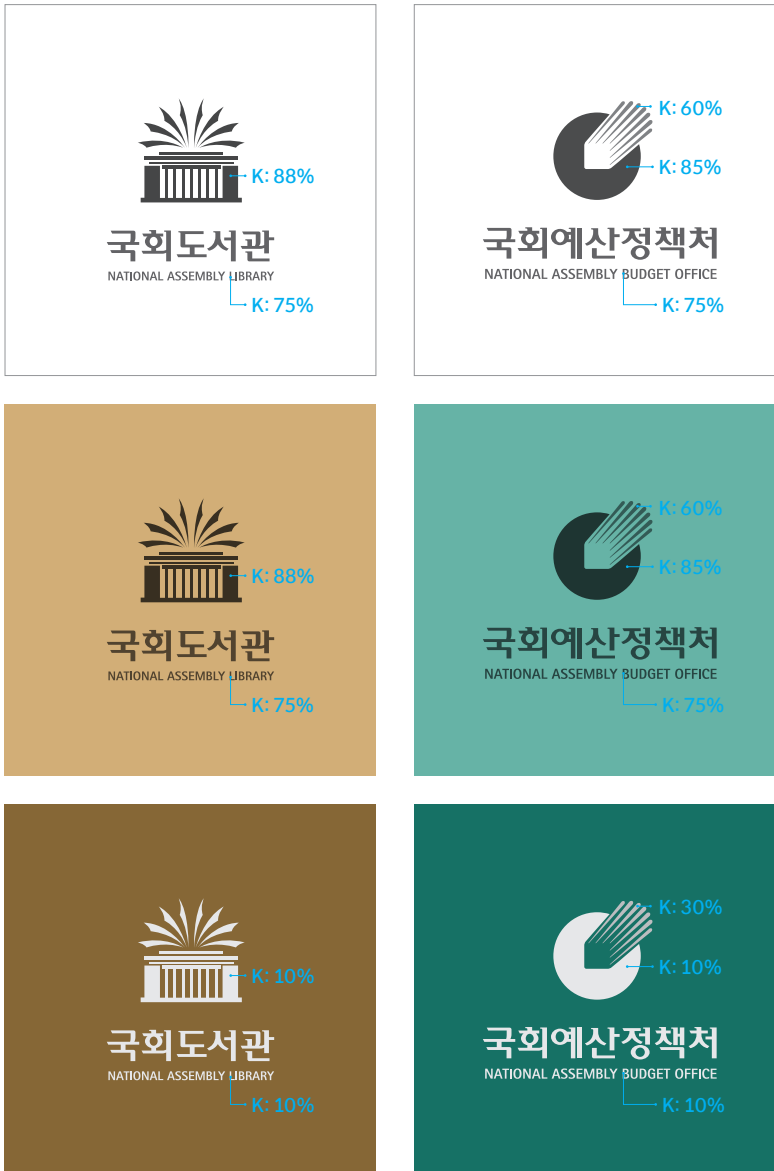


기관별 칼라 적용

② 기관별 시그니처의 색상 배경 활용

시그니처와 배경 색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색상 농도에 따라 시그니처의 색상을 규정하여 사용한다.
 규정한 시그니처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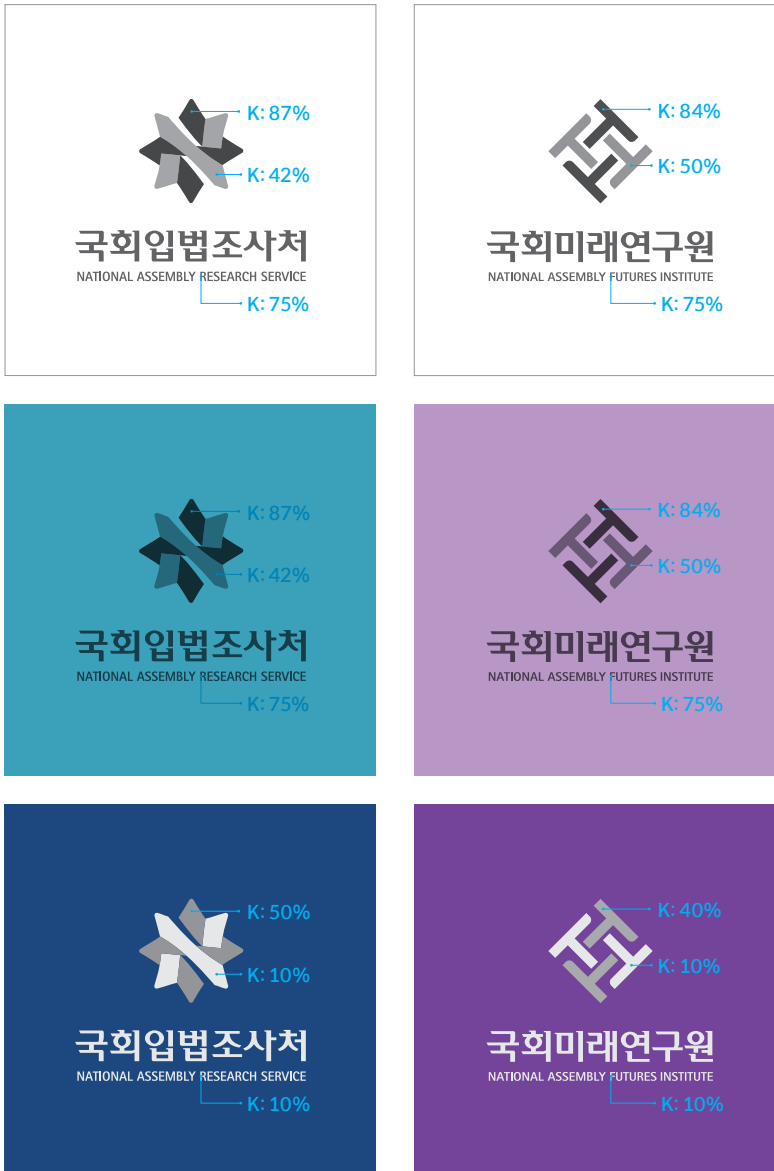
* 밝은 배경 색상의 경우 흑색 1도를 Multiply Effect로 배경색과 혼합,
 어두운 배경 색상의 경우 시그니처의 백색 사용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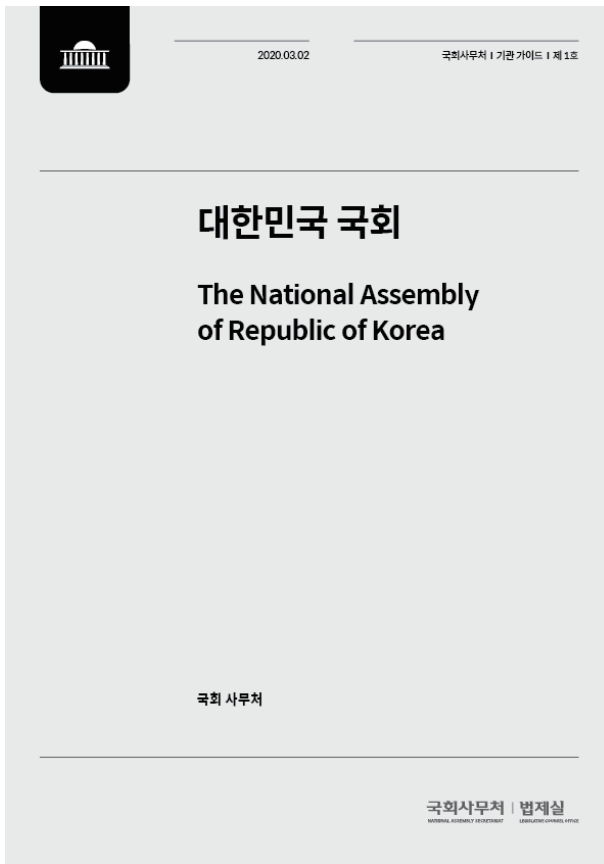
② 기관별 시그니처의 색상 배경 활용

시그니처와 배경 색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색상 농도에 따라 시그니처의 색상을 규정하여 사용한다.
 규정한 시그니처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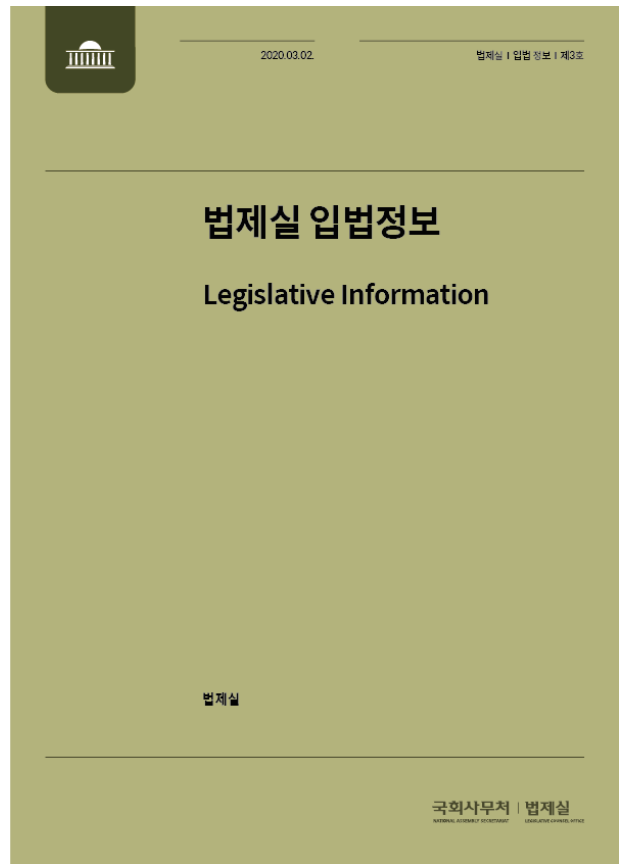
* 밝은 배경 색상의 경우 흑색 1도를 Multiply Effect로 배경색과 혼합,
 어두운 배경 색상의 경우 시그니처의 백색 사용을 규정



나. 기관별 색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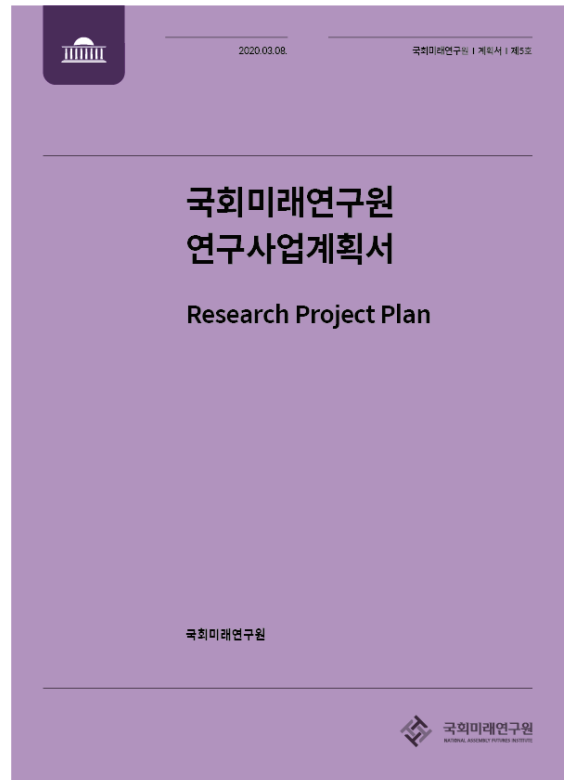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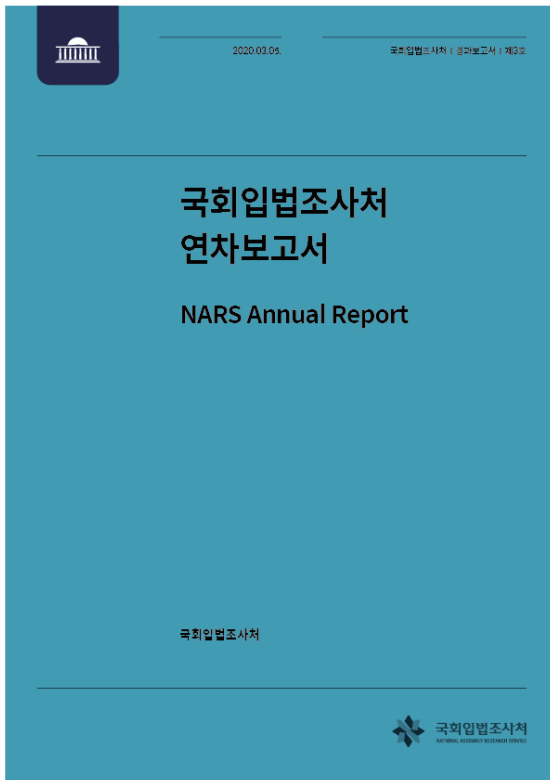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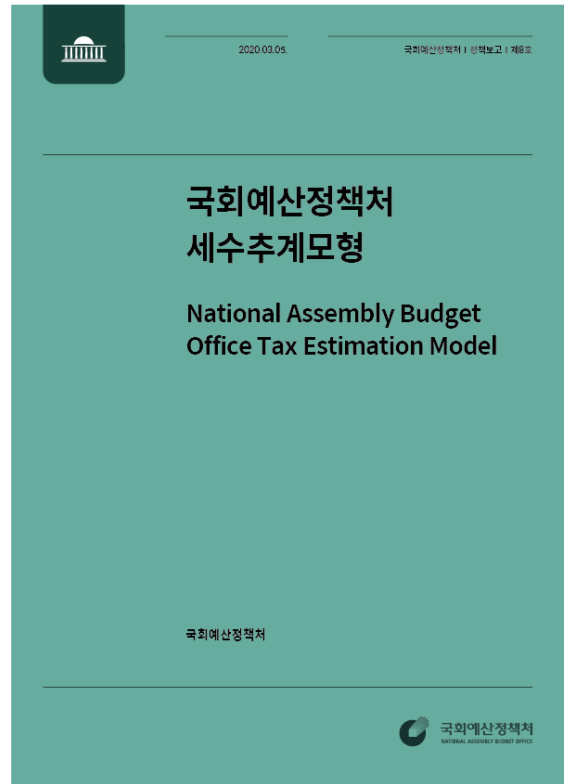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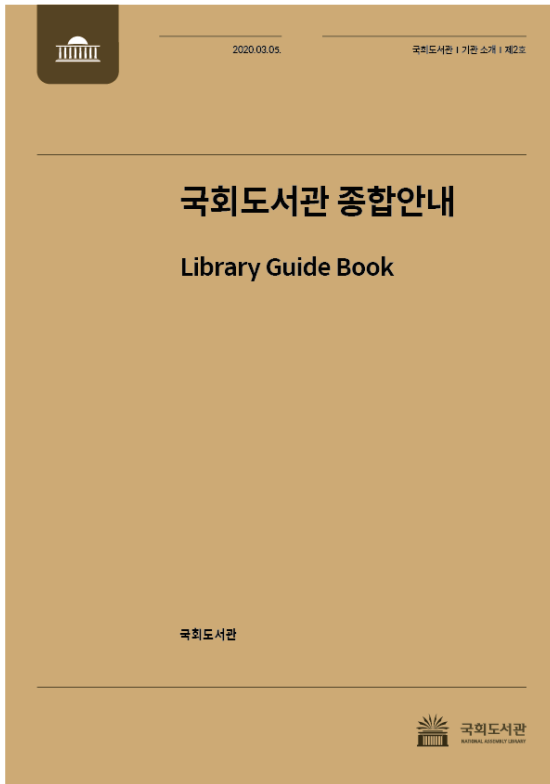


대한민국국회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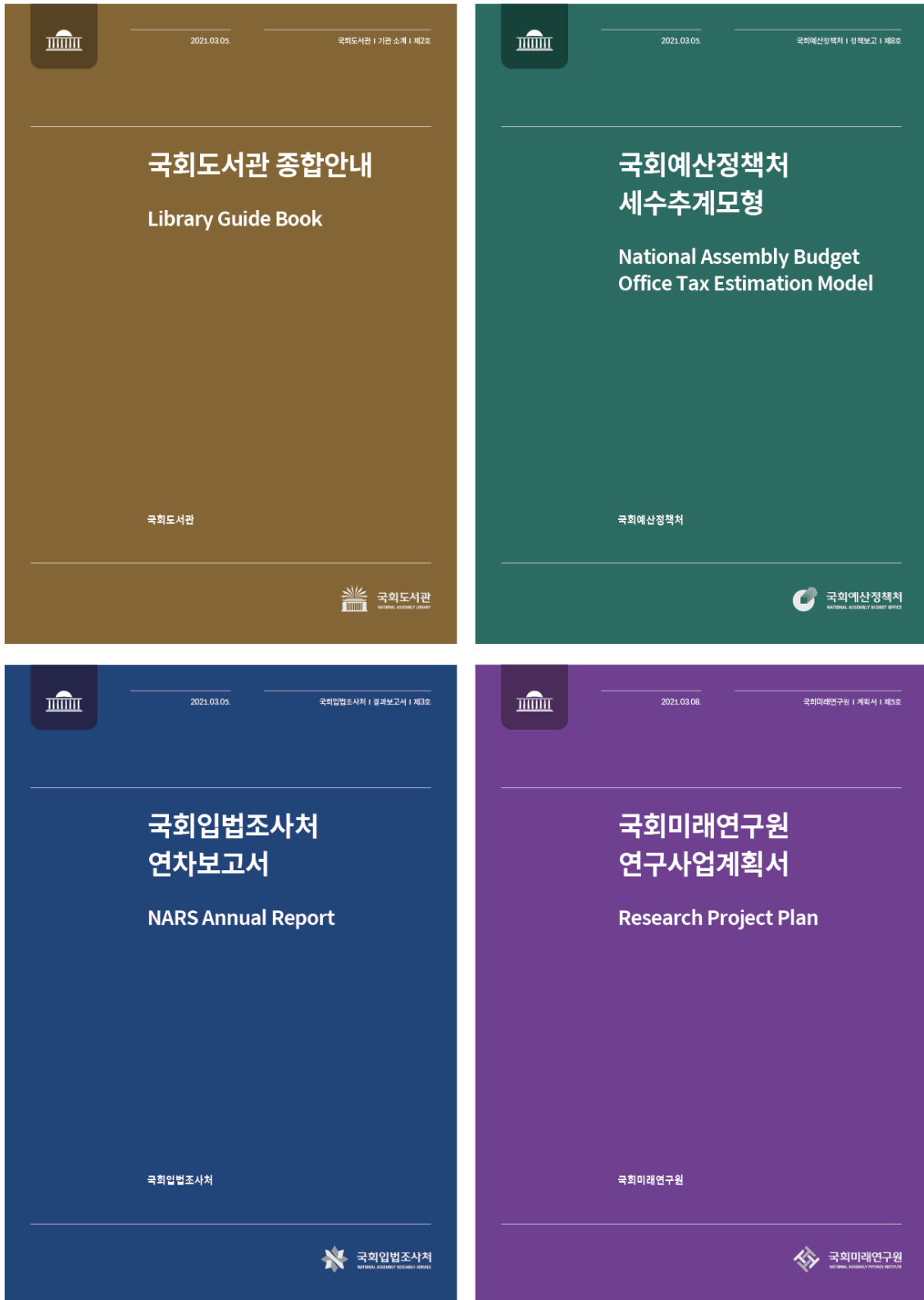
사무처(법제실) 색상 활용

나. 기관별 색상 체계



기관별 색상 구분(Main Color 1)

나. 기관별 색상 체계



기관별 색상 구분(Main Color 2)

나. 기관별 색상 체계



연도별 색상 구분(Main Color 1,2)

3. 타이포그래피 체계 Typography System

가. 국회 간행물 서체 사용 원칙

국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지정된 서체 체계를 준수하여 사용 한다.

* 간행물 및 편집물에서 본문에 사용되는 서체에 한정하며 광고 등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서체 또는 레터링은 별개로 진행 가능

나. 타이포그래피 체계

- ① 고딕계열 : 스포카 한 산스 (Spoqa Han Sans)

스포카 한 산스
Spoqa Han Sans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_+{}[]\

- ② 명조계열 : KoPub 바탕

KoPub 바탕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_+{}[]\

다. 본문 사용 서체 체계

① 고딕계열 : 스포카 한 산스 (Spoqa Han Sans)

대한민국 국회 | Spoqa Han Sans

국회의사당은 부지 330,579m²에 연면적 81,443m²의 지하1층, 지상7층의 건물로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6년의 공사 끝에 1975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현대식 건물양식에 한국의 전통미를 가미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의 회녹색상 돔은 동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동판 자체의 붉은 색상을 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판이 녹슬어 점점 지금과 같은 색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밑지름이 64m이고 무게가 1000ton이나 되는 이 육중한 돔은 회백색상의 처마와 파라펫, 높직한 기단과 8각 기둥의 24개 각주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높이 32.5m인 24개의 각주는 24절기를 상징하며, 전면의 기둥 8개는 우리나라 전국 8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하며 '돔'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② 명조계열 : KoPub 바탕

대한민국 국회 | KoPub 바탕체

국회의사당은 부지 330,579m²에 연면적 81,443m²의 지하1층, 지상7층의 건물로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6년의 공사 끝에 1975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현대식 건물양식에 한국의 전통미를 가미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의 회녹색상 돔은 동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동판 자체의 붉은 색상을 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판이 녹슬어 점점 지금과 같은 색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밑지름이 64m이고 무게가 1000ton이나 되는 이 육중한 돔은 회백색상의 처마와 파라펫, 높직한 기단과 8각 기둥의 24개 각주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높이 32.5m인 24개의 각주는 24절기를 상징하며, 전면의 기둥 8개는 우리나라 전국 8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하며 '돔'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II. Applicatio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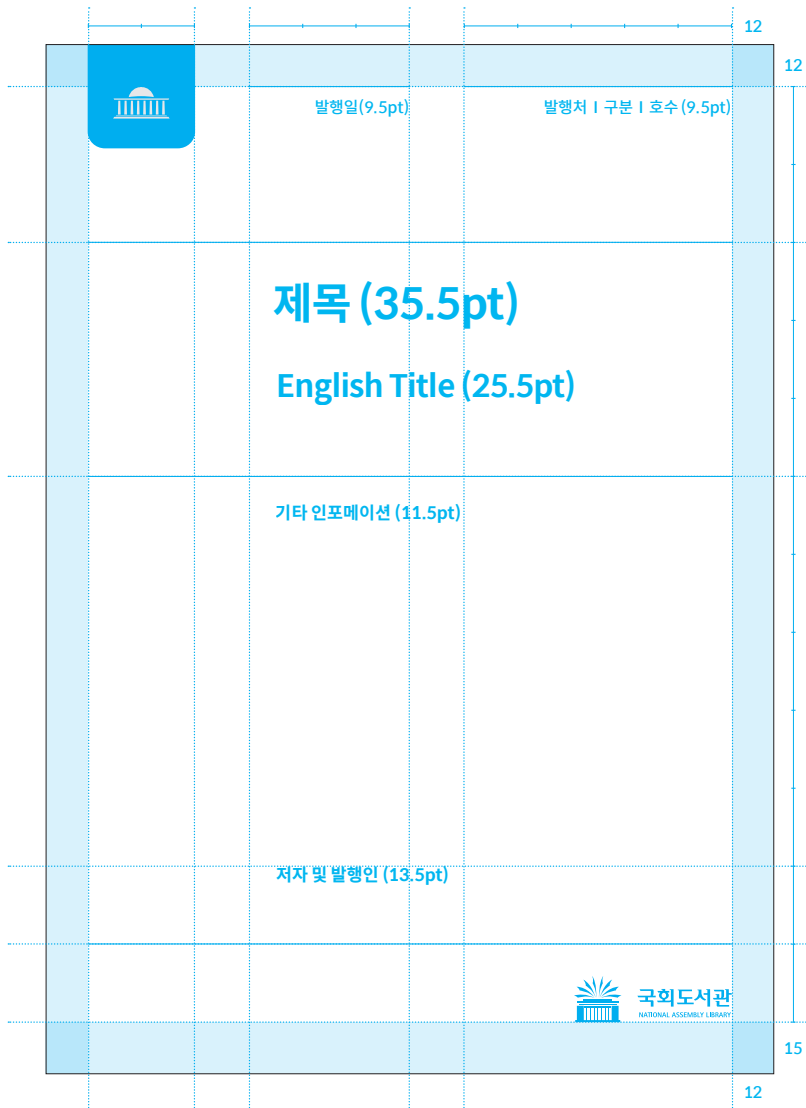
1. 표지 디자인 Cover Design
2. 디자인 활용 Variation

1. 표지 디자인 Cover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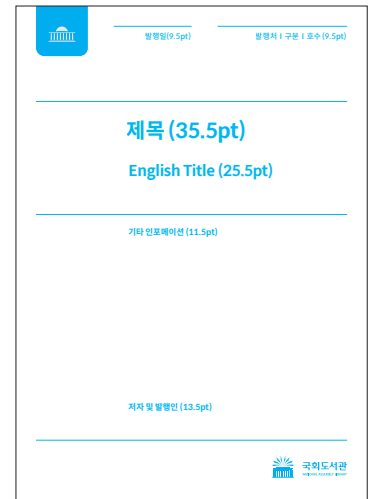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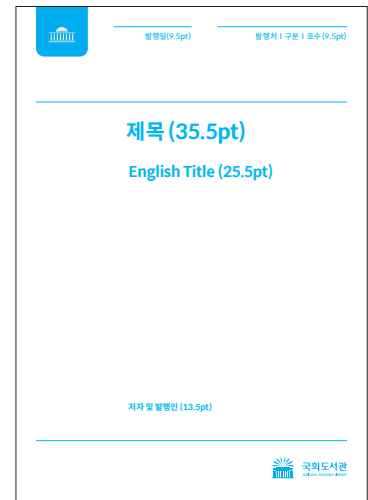
가. 2종 표지 규격 디자인

표지의 판형은 기존 출판물 사용 규격을 참고하여 A4 | B5의 2종으로 제안하며
규격별 가이드에 맞추어 사용한다.

① A4 (210mm X 297mm)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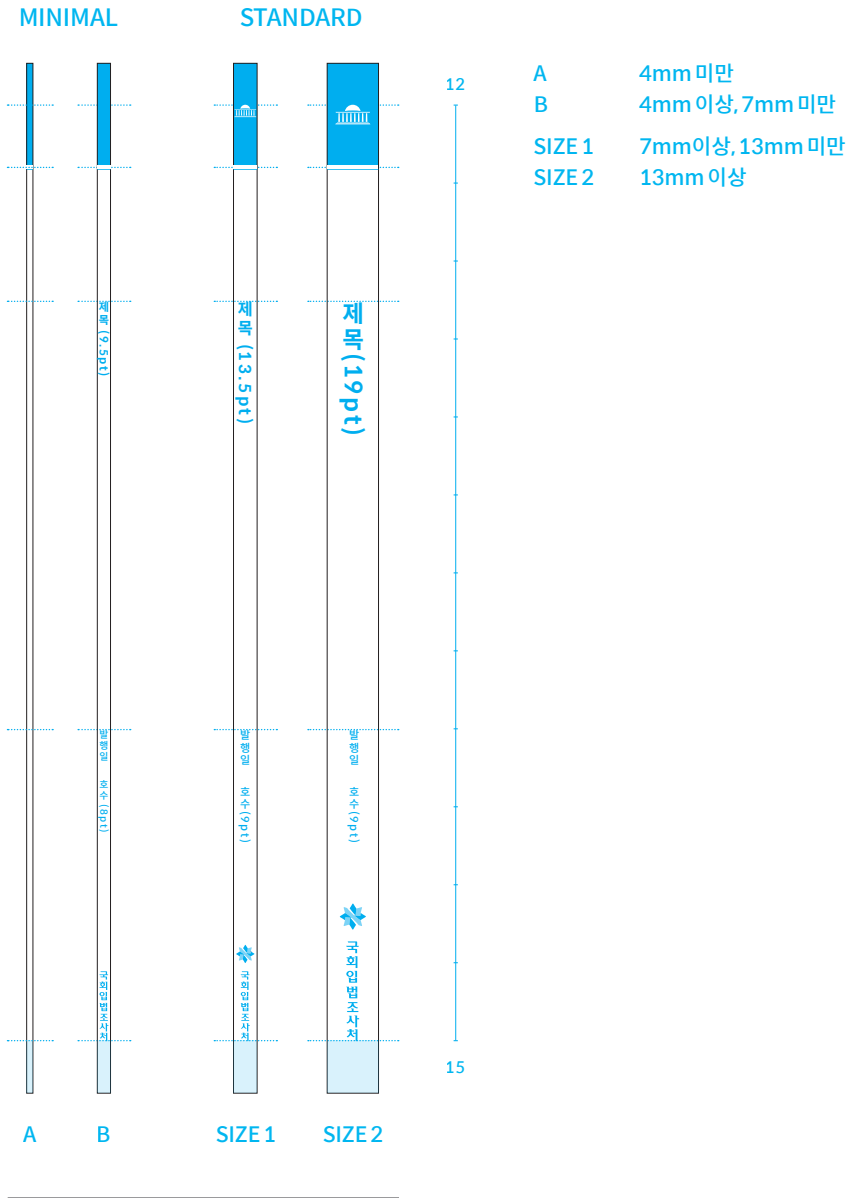
표준 A4 그리드



정보에 따른 변형 사용

② A4 (210mm X 297mm) 책등 가이드

책의 두께 환경에 따라 4가지 가이드에 맞추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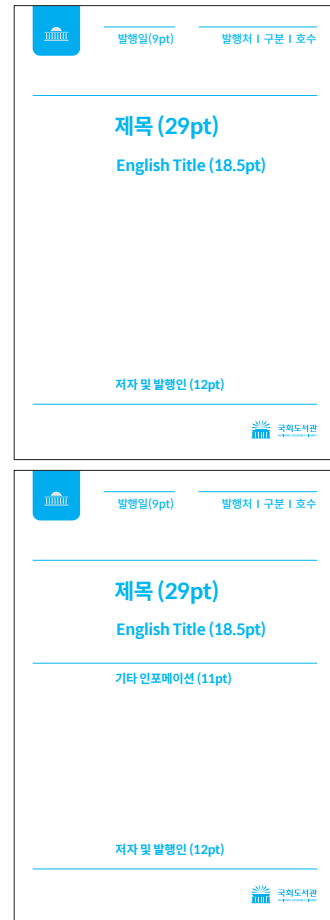


A4 책등 가이드

③ B5 (182mm X 257mm)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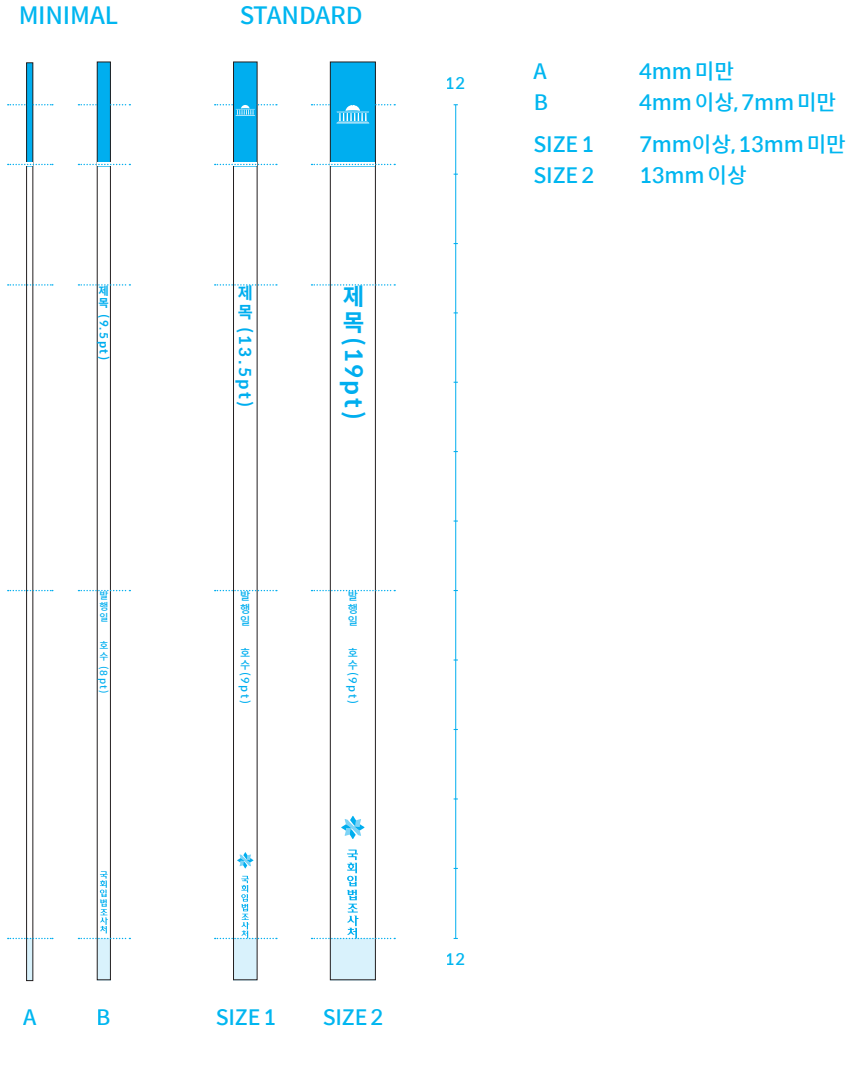


표준 B5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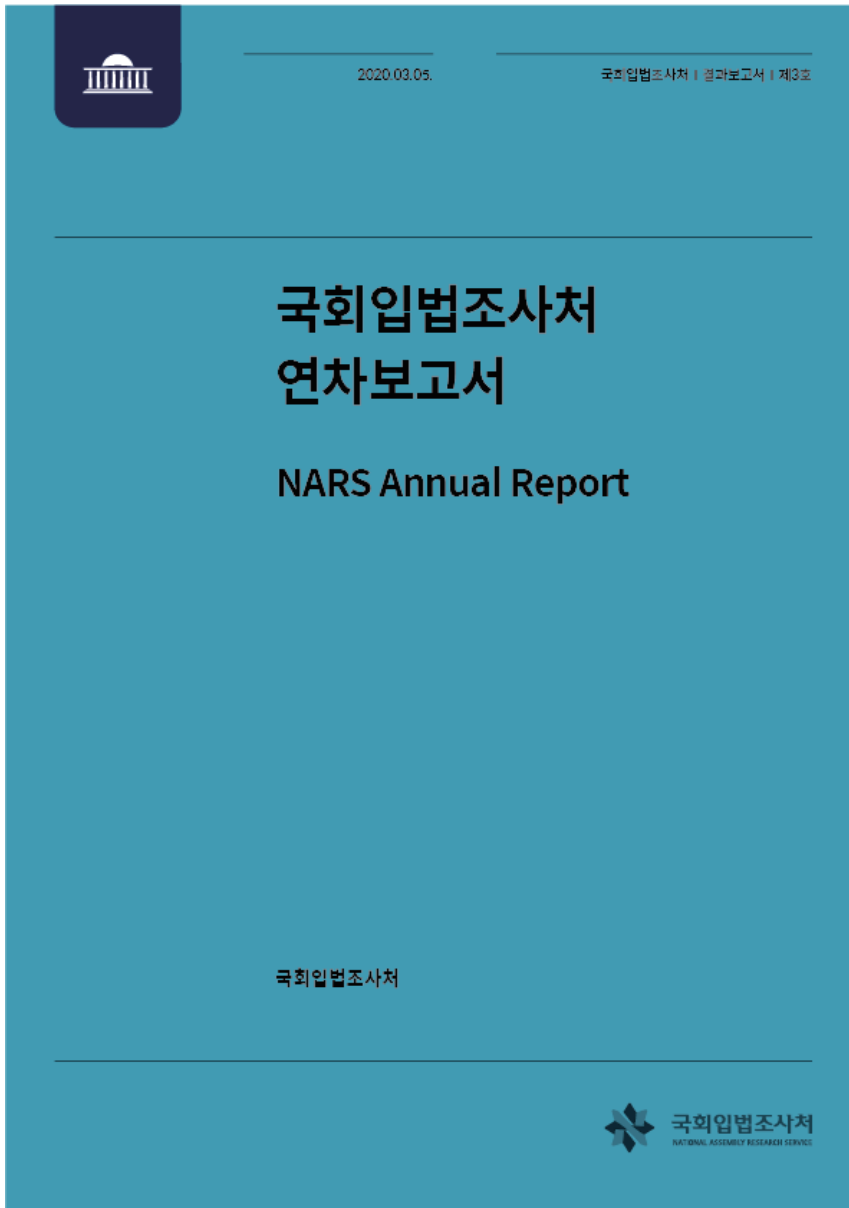
정보에 따른 변형 사용

④ B5 (182mm X 257mm) 책등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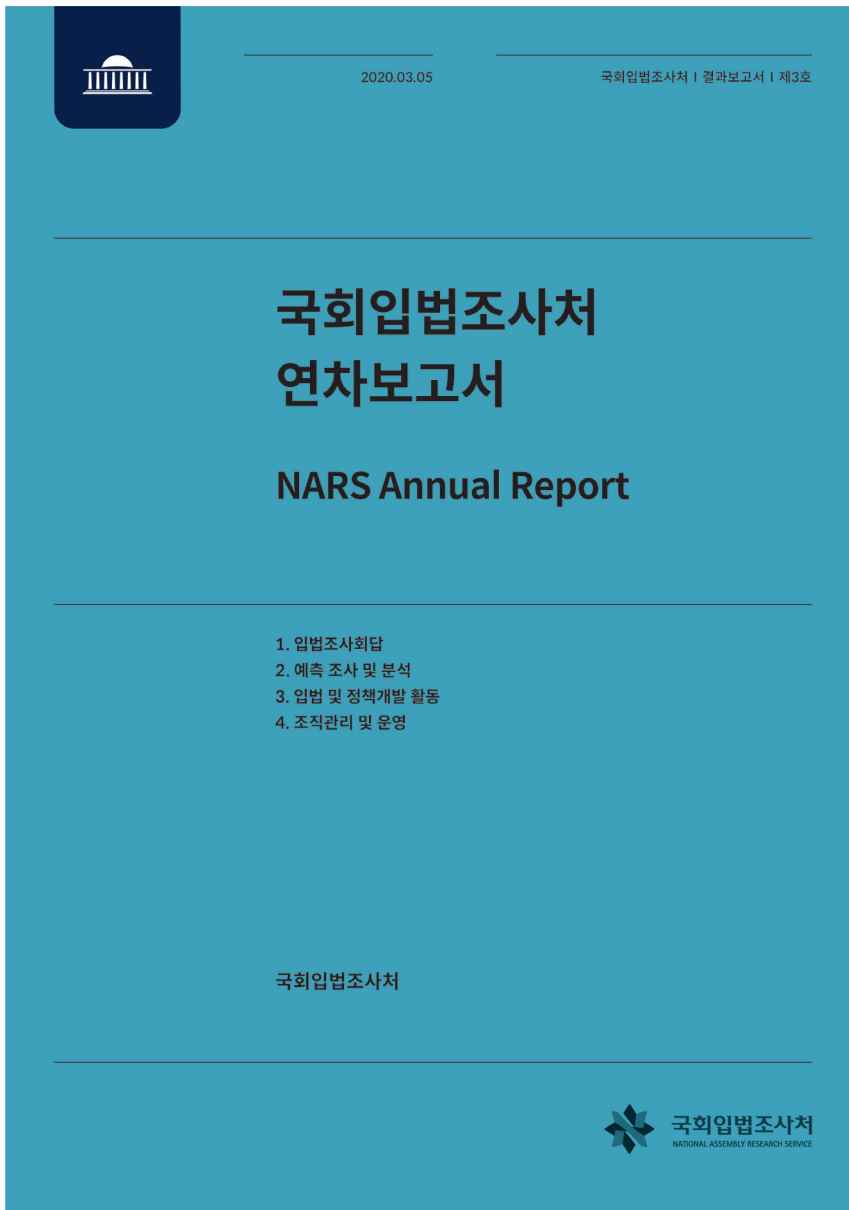
B5 책등 가이드

① A4 (210mm X 297mm)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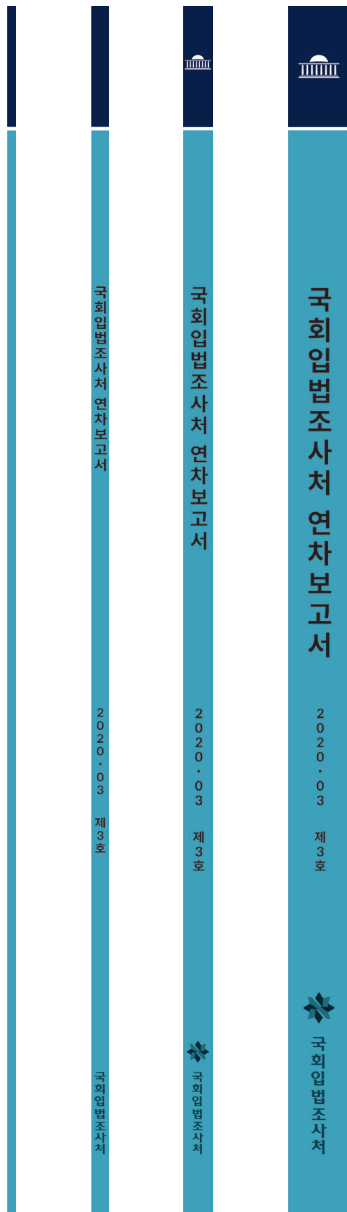
A4 가이드 기본형

① A4 (210mm X 297mm)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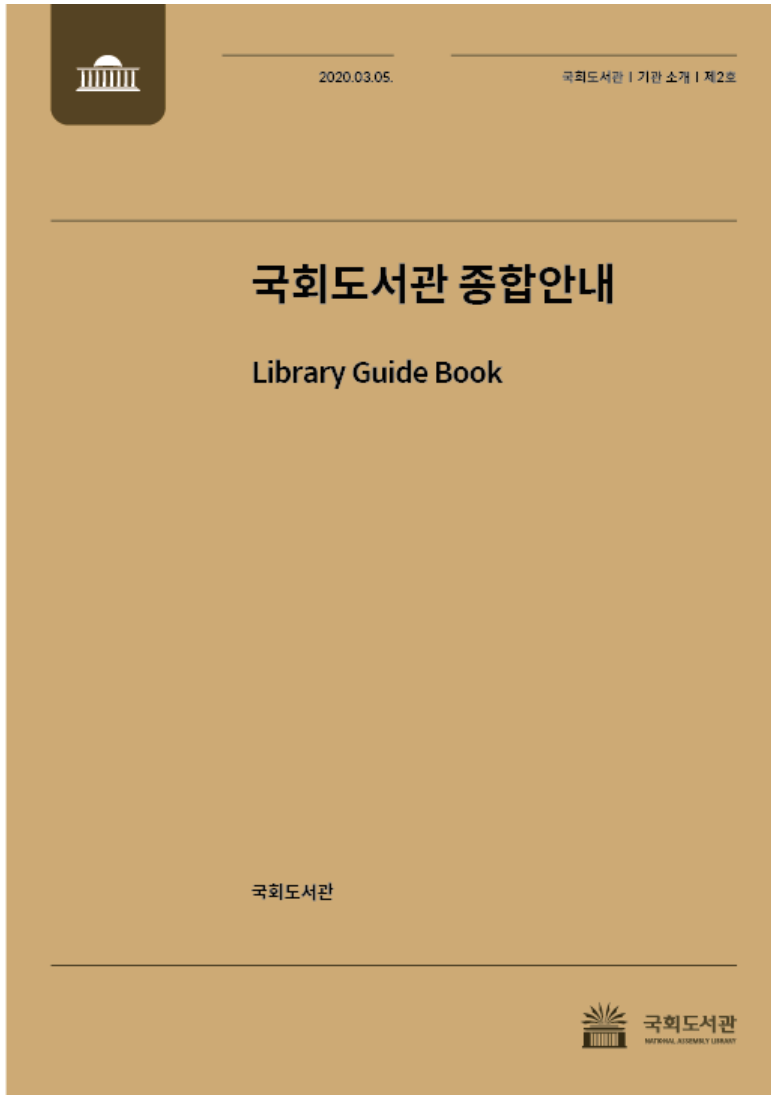
A4 가이드 변화형

② A4 (210mm X 297mm) 책등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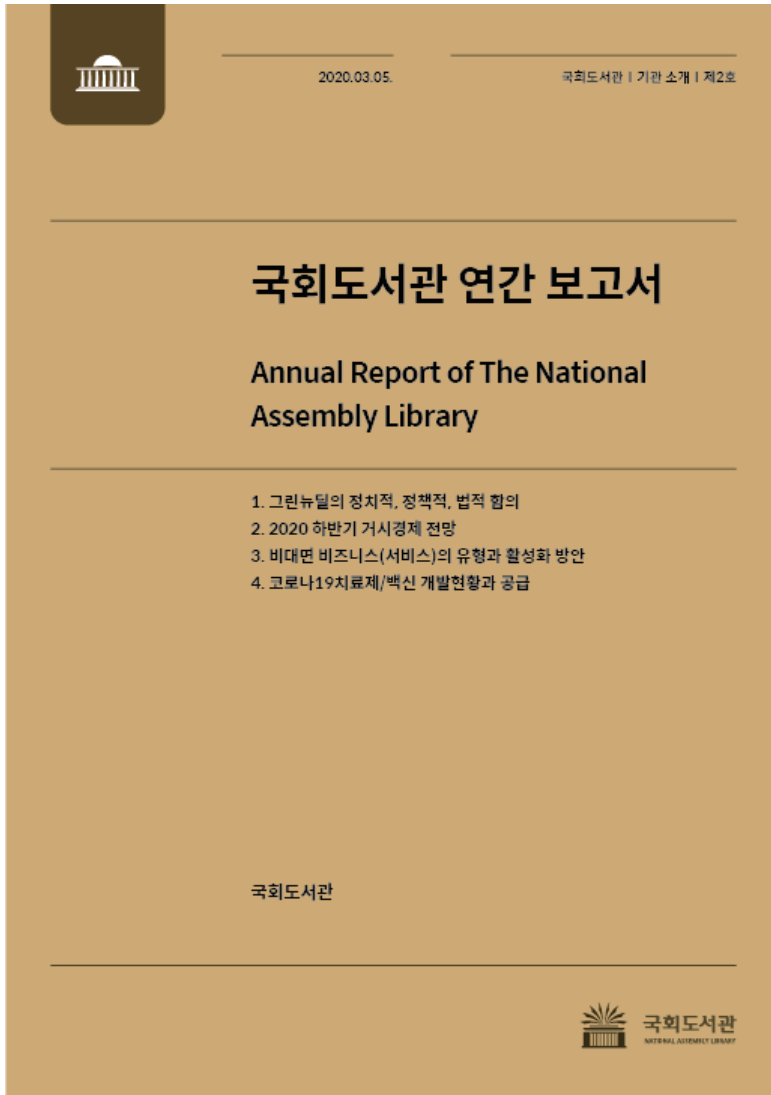
A4 책등 가이드

③ B5 (182mm X 257mm) 규격



B5 가이드 기본형

③ B5 (182mm X 257mm) 규격



B5가이드 변화형

④ B5 (182mm X 257mm) 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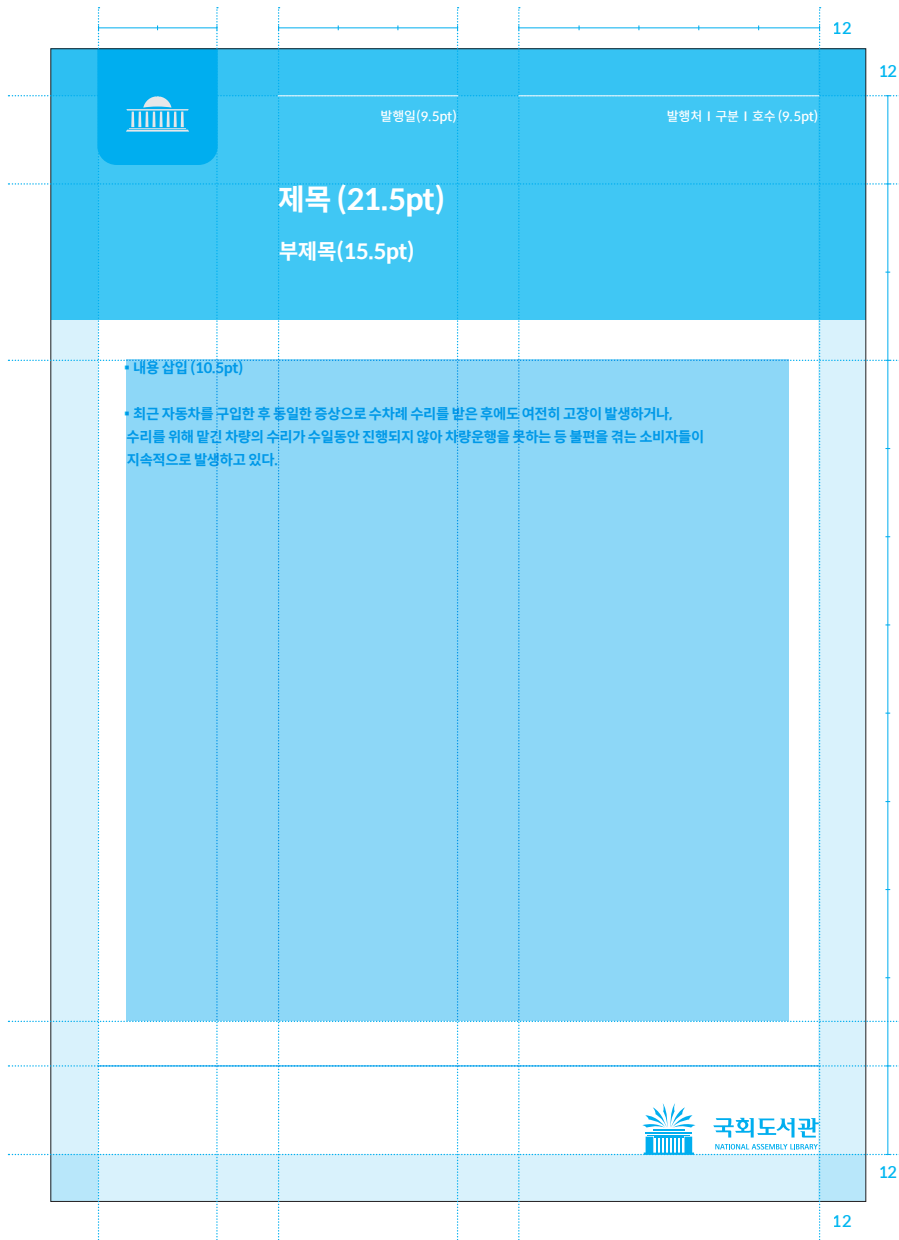


B5 책등 가이드

2. 디자인 활용 Variation


① 낱장 정보물 A4 (210mm X 297mm) 규격

낱장으로 사용하는 정보물의 경우 동일하게 사용하는 인포메이션의 위치를 통일하고 정보물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을 규정한다.



A4 낱장 정보물 그리드


① 낱장 정보물 A4 (210mm X 297mm) 규격


2020.12.30
국회미래연구원 | 입법정보 | 제 5호

최신외국입법정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

- 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증상으로 수차례 수리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고장이 발생하거나, 수리를 위해 맡긴 차량의 수리가 수일동안 진행되지 않아 차량운행을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은 하자 차량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동일한 모델로의 교환이나 구입금액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다.
- 미국도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면 중재 절차 없이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요건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대상 요건의 경우, 자동차 구입 후 1년이 지나면 운행상황 등에 따른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차량 자체의 문제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규명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 또한, 자동차 리콜은 다수의 동종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제작 결함에 대해 시정 조치(리콜)하는 제도로 자동차 결함은 리콜의 대상으로 교환·환불의 대상이 아니다.
- 제도 시행(19.1.1) 이후 '20.7월 말까지 종료된 교환·환불 중재 97건 중 중재 판정(23건)에서 교환·환불은 없으나 화해 판정 3건(정밀점검 2, 금전보상 1)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졌고, 특히, 신청인이 취하한 74건 중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25건, 추가수리 18건 등이 있고 이는 동 제도 도입 효과로 볼 수 있다.
- 아울러, 양 당사자 합의를 통한 제작사측의 자발적인 교환·환불을 막을 수는 없고, 소비자측면에서 최종 판정 절차까지 진행되기 이전에 제작사의 자발적 교환·환불과 중재판정에 따른 교환·환불은 동일하다.
- 제작사·소비자 모두 중재 절차가 최종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당사자 모두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으며, 소비자의 중재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을 통해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